

광양 빛그린매실사업단 '총체적 난국'

市 67억 투입 전략식품사업...가공시설 고장 수개월째 가동 중단 운영 미숙·전문인력 부족...사업단 "정비 후 내달 중순 정상가동"

광양시의 지역 전략 식품사업인 빛그린 매실사업단의 가공시설 고장으로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되고 운영 미숙과 전문 인력 부족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광양시에 따르면 2017년 6월 가동을 시작한 빛그린매실사업단의 핵심 가공 시설인 여과기가 고장이 나 지난해 9월부터 가동을 멈췄다.

여과기는 모두 48개로 매실을 가공할 때 농축액을 걸러내는 필터가 파손돼 이 중 25개가 고장이 났다.

여과기가 고장 나면서 매실 가공도 중단된 상태. 여기에 얹힌 데 달친 격으로 사무국 직원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면서 공장 가동이 사실상 멈췄다.

시설 가동 인원도 공장장 1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용직뿐인 만큼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또 지난해 일부 이사들이 가공 설비가 중고 제품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내부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논란이 지속하자 광양시는 최근 설비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중고품은 없고 계측기 등 일부 부품은 포스코 설비와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장 난 여과기는 납품 업체가 20개를, 나머지 5개는 매실사업단이 교체해 2월 15일쯤 기술진이 최종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빛그린매실사업단은 직원을 채용하고 비상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운영 미숙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빛그린매실사업단 관계자는 "고장 난 여과기를 모두 교체해 전문 기술진이 정비를 마치면 내달 중순쯤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 공장을 시공했던 분을 공장장으로 초빙하고 운영상 미숙한 점도 보



광양시의 지역 전략 식품사업인 빛그린매실사업단의 가공시설 고장으로 수개월째 가동이 중단됐다. 다압면 빛그린매실사업단 공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안해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매실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5년간 국비 60억원과 자부담 7억원 등 67억원을 빛그린매실사업단에 지원했다.

2016년 11월 매실가공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이듬해인 201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매실 100t을 수매해 농축액 등으로 가공했다.

지난해에는 80t을 수매했으나 가동이 중단되면서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식품 가공공장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가동하면서 미비한 점을 정비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험 가동할 때 고장이 나 1차로 보완 작업을 마쳤다"며 "고장 난 여과기를 새로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는 올해 매화축제를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오는 3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매화축제 3월 8일~17일 개최

당초보다 1주일 앞당겨

광양시는 제21회 광양매화축제를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인 오는 3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추진한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매화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호)를 열고 축제 시기 선정과 축제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당초보다 1주일 앞당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매화마을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매화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피고 있어 축제를 앞당겨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매화꽃 전국, 여기는 광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매화축제는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해 개화 상황과 축제현장을 실시간 안내하고,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축제현장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중계한다.

또 '곤들의 매화마을 섬진강 이야기'를 통해 '꽃 키우는 농사꾼' 홍쌍리 여사와 '섬진강 시인 입담꾼' 김용택씨,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씨를 초청한 특별한 토크콘연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둔치주차장-행사장 가로수길(1km) 개설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종마동-행사장 시내 순환버스와 광주터미널 임시 고속버스를 확대한다.

매화마을 ~ 하동 섬진강에 '화합의 부교'를 설치해 하동에서 행사장까지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부교 위에서는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 주민들의 화합과 상생을 위한 '연어 치어 방류행사'와 풍물놀이 개마행사로 열린다.

또 도로변 공유지에 난립했던 야시장과 품바공연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리 현수막을 설치하고, 노점상 구역에는 공공부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광양상의 올해도 운영기관 선정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가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해온 광양상공회의소는 2016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2018년에는 총 14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634명의 청년이 공제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 동안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지원받는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광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이트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 총 물동량 3억t 달성

세계 항만 중 11번째 개가 월드마린센터서 기념행사

광양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주최로 여수·광양항 총 물동량 3억t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지난 24일 월드마린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 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해운·항만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는 3억t 달성 홍보영상 상영과 포상 수여식, 축하 및 축하 퍼포먼스, 2025년 3억 7000만t 달성 비전 선포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3억t 달성은 광양항이 개항한 지 32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항만 중에서 부산항에 이은 두 번째 성과이자, 세계 항만 중 11번째이다.

특히 총 물동량 3억t은 세계 10대 항만 진입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해운·항만의 힘든 여건 속에서 거둔 성과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4년 233만 TEU로 정점을 찍은 후 한진해운 여파 등으로 한동안 물동량이 감소되는 어려움을 극복



지난 24일 광양시 월드마린센터에서 여수·광양항 물동량 3억t 달성 기념식이 열렸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정현복 광양시장, 권오봉 여수시장,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하고 2017년보다 7.6%이상 증가한 240만 TEU는 3억t 달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시는 이번 광양항 물동량 3억t 돌파를 계기로 광양항이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양항을 해양산업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단지 154kV 전력공급 시설 설치, 특정해역 준설, 자동화 항만시설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또 남북경협을 통일시대를 대비해 대륙

간 물류거점항 육성코자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를 통해 "광양항의 물동량 3억t 돌파는 광양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적인 성과"라며 "이번 성과를 기쁨삼아 광양항이 세계 10대 항만으로 도약하고, 시 승격 30주년이 된 우리 시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발전해 국가와 전남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청렴도 1등급 2년연속 달성 전략과제 수립

광양시가 '청렴도 1등급 2년 연속 달성'을 목표로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시'로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 시스템 구축', '청렴문화 조성', '청렴마인드 함양' 등 3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부패 시스템 구축 분야로 ▲공공분야 감시·지연센터 운영 ▲청렴도 취약분야 상시 청렴교육 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청렴향상 컨설팅 실시 ▲청렴도 취약분야 및 신규 임용자 특별 교육 실시 ▲전문 감사 초빙 청렴교육 ▲청렴유예제 통한 자정활동 ▲부패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감사·감찰 활동 체계를 확립하고, 금품·향응·

편의 수수를 사전에 근절해 부패 없는 환경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렴 문화 조성 분야로 ▲청렴메시지, 청렴서한문 발송 ▲실·국장 청렴행정 책임관제 운영 ▲민관 협력 부패행위 모니터링 ▲청렴콘서트·청렴캠페인 실시 ▲전부서 청렴 데이(Day)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중점 추진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렴마인드 함양 분야로 전직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공직자 상시 청렴교육 시스템 운영 ▲찾아가는 청렴향상 컨설팅 실시 ▲청렴도 취약분야 및 신규 임용자 특별 교육 실시 ▲전문 감사 초빙 청렴교육 ▲청렴유예제 통한 자정활동 ▲부패 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등을 추진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Approved Partner | Hearing Instrument |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